

## 인도네시아 바탐 강재모/김지연 선교사의 2020년 6월 선교 편지

**6월** 한국은 봄을 지나 여름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올해는 봄의 화사함을 느끼지 못하고 바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곳 인도네시아 바탐은 여전히 더운 날씨이며, 거의 매일 폭우가 쏟아지는 장마 같은 날씨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 확진은 6월 23일(금) 현재 확진자 47,896명(5월 중순 16,496명), 사망자 2,535명 (5월 중순 1,076명) 으로 계속 증가 추세이며, 최근 들어서는 확진자가 거의 매일 1천명 이상 나오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행인 것은 회복되는 환자의 숫자도 매일 거의 5백명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 개월째 이어지 통제는 조금씩 완화되고 있습니다.

바탐 시내 거리에서는 거의 100% 마스크를 하고 다니며, 건물 출입 시에도 손 소독과 발열 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간혹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 개인 위생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교육(학교)은 그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곳. . .”(6월 6일)

1. 코로나 사태로 이곳 인도네시아 바탐은 3월부터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되지 않고 처음 경험하는 온라인 수업으로 겨우 겨우 3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2. 작년 하반기에 시작된 에벤에셀 고등학교 교실 추가 2층 공사는 약 70퍼센트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3. 요즘 들어 비가 자주 오지만 남은 부분은 실내 공사 (벽면, 바닥 타일, 전기 배선 등) 중 심이라서 큰 지장은 없습니다.
4. 코로나 사태로 모두들 힘들고 생계가 우선이기에 교육적 부담이 적은 공립학교로 많은 학생들이 옮기고 있습니다.
5. 에벤에셀 기독교회는 인도네시아의 미래 지도자를 믿음 안에서 키우는 목표로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 81:10절 하) 학생들의 책상, 의자, 칠판, 책장, 선풍기. . . . 주님 채우소서. . .

### 재난 지원금. . .(6월 18일)

1.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다.
2. 과연 가능 할까?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지만 재난 지원금 또한 들어 본적도 받아 본적도 없었기에. . .
3. 아쉽게 해외에서 장기 사역을 하는 우리는 대상에서 제외 되어서 서운하기도 했지만 . . . 얼마나 위급하면 국가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위급한 시기를 어떻게든 버티기 위한 조치였다고 생각 하였다.
4. 이후 계속 머릿 속에 마음 속에 드는 생각이 있었다. “우리 에벤에셀 학교도 재난 지원금과 같은 학비 지원을 더 많이 하고 싶다는. . 아니 해야 한다는. . .”
5. 한국 교회와 성도들도 모두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지. . . 기도하며 선교 편지를 통하여 마음을 나누었다.
6. 전혀 예상치 못 했던 성도님들과 믿음의 기업, 교회를 통하여 공급해 주셨다. 에벤에셀. .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7. 매월 학비 전액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백명 정도 되며 전체 학생의 약 13퍼센트입니다. 지난 달에 이어 이번 달에 특별 코로나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147명이 추가 되어 약 250명의 학생, 전교생중 이번 달에는 약 33퍼센트의 학생들이 학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8. 심고,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인도네시아의 지도자로 자라게 하실 줄을 믿고 더욱 힘을 다하여 심고, 물 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 2020년 6월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6월 중순부터 이민국의 업무가 재개되었지만 하루에 20명만 업무를 진행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예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 되고 있습니다.

- 지난 십 여년간 인도네시아 거주 비자는 매년 힘든 과정을 통하여 받았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만반의 준비를 하여서 잘 진행되어 왔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마지막 절차에서 수 개월째 이민국이 폐쇄되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이제 재개 되었지만 예상보다 늦은 처리로 인하여 6월 한국 방문 계획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7월에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자가 격리 2주를 지내고 나면 한국에서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6월 말까지 비자 진행 상황을 보면서 최종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2. 에벤에셀 학교의 온라인 수업 진행과 학교 재정(학비납부 와 교사 및 직원의 월급 준비)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지난 3개월 간 대부분의 기업과 학교들이 월급을 삭감하는 가운데서도 저희 에벤에셀 학교 교사, 스텝들과 클리닉의 의사, 간호사들의 월급은 예전과 같이 정상적인 월급을 지급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통하여 코로나 특별 선교 헌금을 해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학비를 낼 수 없는 학생들은 교사들과 함께 가정별로 모두 확인하여서 최대한 지원을 해서 정상적으로 졸업(이곳 인도네시아는 6월말에 학년 졸업을 하고 7월부터 새로운 학년이 시작됩니다.)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3. 7월 중순 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학생 입학 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6월 말 현재 등록현황은 유치원 39명(목표 60명) / 초등학교 1학년 88명(목표 100명)  
중학교 1학년 52명(목표 60명) / 고등학교 1학년 22명 (목표 30명)
-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목표한 학생이 입학을 하여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온라인 수업을 하는 관계로 특히 유치원 입학생이 많이 줄었습니다.

4. 에벤 에셀 학교의 학생들 가운데 가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연결하여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위하여

- 연말까지 100명 지원이 목표 였는데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몇 몇 분들이 소중한 장학금을 작성해 주셔서 6월 현재 100명이 조금 넘는 학생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 저희 학교의 학비는 매월 초등생의 경우 약 2만원, 중등생은 약2만 5천원, 고등생은 약3만 5천원 입니다

5. 코로나 사태로 현지 교회(바담과 주변 섬)로 부터의 생필품(쌀, 라면, 식용유, 설탕 등) 지원 요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 할 수 있는 만큼 계속 지원을 하고자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저의 경우도 개인 선교 후원이 줄어드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선교지에서의 도움 요청은 많은 상황이지만 모두 도울 수 없기에 주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다양한 방법으로 채워 주시길 기도합니다.

6.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새 건물 2층 교실 공사 (소강당, 교실, 사무실 등) 건축이 6월 말까지 잘 진행되어 7월 새로운 신입생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공사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전체 목표 공정의 약 7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 건축 후에 필요 물품이 준비 될 수 있도록 (교실 - 칠판, 책상, 걸상, 책장, / 소강당- 키보드, 마이크, 에어컨, 음향시설 등)

7. 의료 선교는 저에게 여전히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 현재 2곳(벵콩, 풍굴)의 클리닉을 2명의 의사, 3명의 간호사와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갈수록 적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일반 환자를 돌보며 매년 수차례 걸쳐서 가난한 이들에게 무료 진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교에 쓰임 받는 병원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 풍굴 병원의 경우 그 지역에서 유일한 초음파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20년 전에 구입한 중고 기계로는 더 이상 임신 환자의 태아 상태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수 년째 기계 교체를 요청하였는데 진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 인도네시아에서 구입할 경우 중간 기능의 초음파 기계가 한화 300만원입니다. 꼭 필요한 기계라면 주님께서 준비 해 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6. 클리닉 내에 피부미용실 개설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 한국에서 피부 미용 관련 사업을 하는 서울 온누리교회 청년 자매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 시설 준비에 필요한 재정을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전액 에벤에셀 학교의 장학금과 클리닉의 무료 의료 진료 사역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사실 초기 몇 년간은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7. 선교 카페 준비를 위하여

- 일산 스피릿 교회의 제안으로 작년부터 기도하며 마땅한 장소와 담당인 사람 그리고 선교적 카페의 모델에 대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사태로 대부분의 식당이 문을 닫는 상황에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에 부담이 여전하며, 무엇보다 목사 선교사로서 비즈니스적 사역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기에 현지인 중에 감당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준비되면 시작하려고 합니다.

< 연락처 > 현지 전화 번호 001(국제전화)-62-813-8654-7012 / 070-8235-1152 <070 국내 통화 요금>

카카오톡 아이디 : kangjaemo1004 강재모 선교사 kangjaemo@hanmail.net / 김지연 선교사 wec1004@hanmail.net

후원계좌 예금주 강재모/ 시티은행 8910153025501 우리은행 1002-730-785647